

# 나 무

이 양 하

나무는 덕을 가졌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 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厚薄)과 불만족(不滿足)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 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진달래를 내려다 보되 깔보는 일이 없고, 진달래는 소나무를 우러러 보되 부러워하는 일이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 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 대로 스스로 족하다.

나무는 고독하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함박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파리가 움짖 않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얼고 들우는 동짓달 한밤의 고독도 안다. 그러나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또 고독을 즐긴다.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

름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있고 다정한 친구다. 옷을 뽀  
말이 없으나 이심전심 의사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변덕이 많고 수다스럽고 믿  
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잡이 친구다. 자기 마음에 내  
키는 때 찾아올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쏘삭쏘삭 알랑대고, 어  
떤 때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는 공연히 뒤틀려 우  
악스럽게 남의 팔다리에 생채기를 내 놓고 달아난다. 새 역  
시 바람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역시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  
아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 말고 와  
등지를 틀고, 지켰을 때  
찾아와 쉬며 꾸념하는 것  
이 귀엽다. 그리고 가다  
흥겨워 노래할 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무는 이 모든 것  
을 잘 가릴 줄 안다. 그러  
나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을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달을 유달리 후대  
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하는 일도 없다. 달은 달대로, 새는 새  
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 그리고 친구  
가 오면 다행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는다고 하여 불행해 하  
는 법이 없다. 같은 나무 이웃 나무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두말 할 것이 없다.



나무는 서로 속속들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정하고 공감(共感)한다. 서로 마주보기만 해도 기쁘고, 일생을 이웃하고 살아도 싫증나지 않는 참다운 친구다. 그러나 나무는 친구끼리 서로 즐긴다느니 보다는 제각기 하늘이 준 힘을 다하여 널리 가지를 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더 힘을 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묵도(默禱)하는 것으로 일삼는다. 그러길래 나무는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있다. 그리고 온갖 나뭇잎이 묵은 숲을 찾는 사람이 거룩한 전당에 들어선 것처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연 옷깃을 여미고 우렁찬 찬가(讚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명(天命)을 다하고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 장난 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보고, 흔히 자기 소용달는 대로 가지를 쳐가고, 송두리째 베어 가고 한다. 나무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새긴 이름은 도리어 그들의 원대로 키워지고, 베어 간 재목이 혹 자길 해칠 도끼자루가 되고 톱손잡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다고 하는 법이 없다. 나무는 훌륭한 견인주의자(堅忍主義者)요, 고독(孤獨)의 철인(哲人)이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현인(賢人)이다. 불교의 소위 윤회설(輪廻說)이 참말이라면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무슨 나무가 될까?’ 이미 나무를 뜻하였으나 진달래가 소나무가 될까는 가리지 않으려다.